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4〉

‘어흠’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학승이 물었다.
“사람을 무는 사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노승을 물지 말아줘.”

問 如何是咬人師子
師云 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莫咬老僧

귀의(歸依)는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뜻이다. 귀의불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이고, 귀의법은 ‘진리에 돌아가 의지합니다’이고, 귀의승은 ‘스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이다. 불교에 입문했을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첫 맹세의 노래이다. 여기서 조주 스님은 삼보(三寶)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썼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부처님을 사자에 비유한다. 그런데 사자가 문다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중생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최후의 집착마저 야멸치게 물어뜯어 버린다는 뜻이다.

조주 선사는 사자가 막 자기를 물라고 돌진해 올 때를 시연하면서 그 사자는 무섭다는 뜻을 내보였다.

“나는 당신 편이어요. 나는 이미 버렸어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물지 말아주세요!”

선사는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고, 순응하고, 긍정하고, 배척하는 것을 설명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수가 있다. 하나의 행동이 수많은 말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언구(言句)를 떠나서 노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은 기침을 한번 했다.

問 離卻言句請師道
師咳嗽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속에는 진실이 있지 않습니다. 선사시여, 말과 뜻을 떠나서 꼭꼭 숨어있는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조주 선사는 “어흠” 하고 한번 기침을 했다. ‘어흠’이 말인가, 글인가, 뜻인가? ‘어흠’은 언구를 떠난 도리이다. 알겠는가? ‘어흠’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마음을 쉬고 보라. 허망한 욕심과 환상을 버리고 보라. ‘어흠’에 분명 언구를 떠난 도리가 있다. 여기서 잘 탐구해 보라. 어찌하여 이것이 언구를 떠난 도리인가? 만약 여기서 언구를 떠난 도리를 알았거든 방장을 찾아가서 3배를 올린 후에 다짜고짜 물어보라. “언구를 떠난 도리가 무엇입니까?”하고. 그러면 그 방장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問 如何得不謗古人不負恩去
師云 闍黎作麽生

불교는 좋은 일을 해도 절대 ‘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야 참다운 선(善)이라고 말한다. 옛사람은 부처님이고 스승이다. 스승에게 뭘 배웠다라든지 스승님은 이러이러한 진리를 설법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스승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스승은 가르쳐도 가르친 것을 내세우지 않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가르칠 내용도 없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만약 “스승이 이러한 법을 말했다”거나, “이 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승을 비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법이다”라든지, “나의 스승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스승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스승을 비방하지 않고 배반하지도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독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처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이 납자에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다만 스승을 비방할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54
한국선과 선어록 24

천경집(天鏡集)

선의 갈래에 대한 천경의 안목 보인 책

〈천경집〉은 천경 대사(1691~1770)의 글을 모아서 문하인 취운성안(翠雲聖岸)이 3권으로 편록한 것이다. 성안이 쓴 행적에 의하면 휘가 해원(海源)이고, 호는 함월(涵月)이며, 자가 천경(天鏡)이다. 법계로는 청허휴정의 현손에 해당된다. 3세 때 어머니를 잃고 14세 때 도창사(道昌寺)에서 석단(釋丹)스님에게 출가하고, 능허영지(凌虛英智)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여러 선지식을 참하고 환성지안(喚惺志安)에게 6년 동안 삼장(三藏)을 두루 배웠는데 화엄학과 염송에 정통했다. 31세 때부터 75세까지 45년 이상을 남북으로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해월천경은 〈천경집〉에서 기존부터 총림에서 전승되던 조사선과 여래선을 격외선에 배대하고 원돈문의 가르침을 의리선에 배대하는 선의 두 가지 갈래에 대해 비판해 자신만의 독특한 입장을 피력한다.

때문에 격외선과 의리선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선의 명칭에 4종이 있는 것처럼 선의 체성에도 또한 반드시 4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의리선과 격외선의 체성은 본디 있기 때문에 가히 알 수가 있겠지만, 여래선

천경은 화엄학과 염송에 정통했던 인물
격외 · 의리 선의 두 가지 갈래 비판해
격외 · 의리 · 여래 · 조사선 넷을 주장

과 조사선의 경우는 무엇으로 그 체성을 삼을 것인가. 아둔한 산승이 헤아려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한다. 이에 여래선은 법을 설하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능설의 입장이고, 조사선은 설해진 법의 객체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소설의 입장으로 간주했다. 곧 격외선과 의리선의 두 가지를 격외선과 의리선과 여래선과 조사선의 네 가지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의리선과 격외선을 정의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한 뜻은 다만 진여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일심의 근본으로 뭇 중생들을 가르쳐서 저 하나의 비로자나의 본래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곧 원돈문의 의리선이다. 또한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활인검으로 비로자나라는 집착의 소굴을 타파하고 중생 개개인의 본지풍광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소위 ‘법이 법위(法位)에 머물러 세간상이 그대로 상주도리이다’는 것으로 격외선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하택종의 조사들과 홍주종의 조사들 백여 명의 설법은 모두 원돈문의 요의를 근본으로 삼았고, 규봉종밀은 〈선원제전집〉과 〈법집별행록〉을 찬술해 격외선에 상대해 의리선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내세웠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여래선과 조사선을 격외선으로 통칭한 것을 비판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체(事體)로 보면 선과 교가 별개인데 이것은 마치 얼음과 숯처럼 같지가 않고, 법체(法體)로 보면 선과 교가 동일한데 이것은 마치 물과 파도처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청량징관은 선과 교를 법체가 동일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선지를 달마가 전한 이심전심의 소식도 원교에서 말하는 증입생(證入生)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통합적으로 설명한 것은 원교의 학자들이 허영과 교만의 병통에 빠져 선과 교의 고하를 모르고서 한 말이다. 때문에 목우자 지눌은 원교에서 말하는 증입생의 도리를 ‘어로(語路)와 의로(義路)의 흔적을 면하지 못한 짓거리이다’라고 타파해 격외경절문의 도리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격외선에는 여래선이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총림에서 “옛날 선종의 제2조 혜가는 달마에게 참하여 인연의 문답으로 여래선을 깨쳤고, 법인의 문답으로 조사선을 깨쳤다. 또한 방온거사는 석두의 휘하에서 여래선을 깨쳤고, 마조의 휘하에서 조사선의 도리를 깨쳤다”고 말하는 예를 비판해 그들이 처음 선지식을 참하여 깨친 것을 여래선의 획득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처음에 깨친 도리에 대하여 말후뇌관을 투득(透得)하지 못하고 의로의 흔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얄팍하게 여래선으로 폄하해 평가한 것이다.

곧 혜가의 스승인 보리달마와 방온거사의 스승인 석두희천이 격외선을 드날리면서 도리어 그들 제자에게 여래선을 지시한 적이 없고, 또한 격외선 가운데 조사선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선이 어찌 격외선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하는 것은 모두 능설과 소설이 다르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소치라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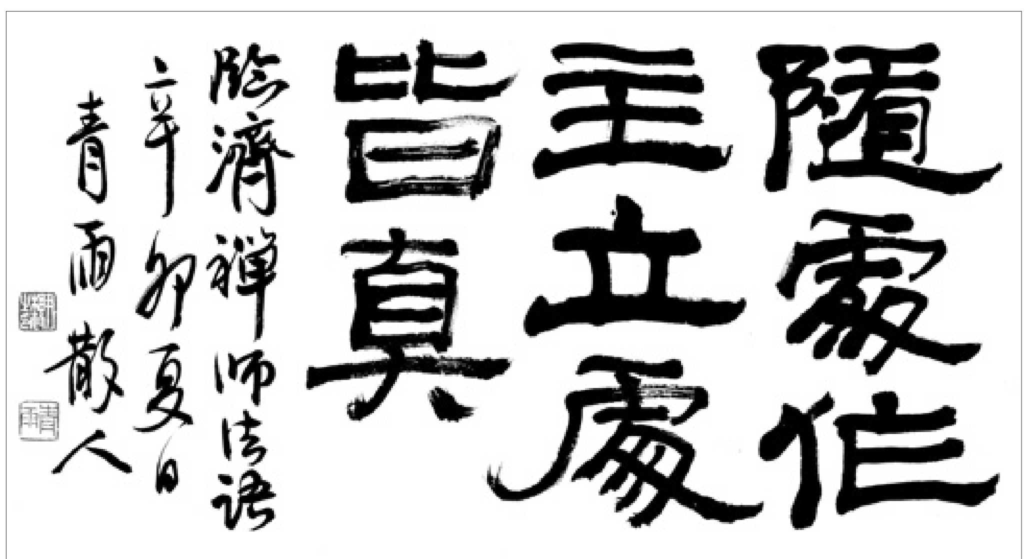
또한 체중현을 의리선에 배대하고 구중현과 현중현을 여래선에 배대하며, 별도로 일구를 두어 조사선에 배대하기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체중현을 의리선에 배대하는 것은 그런대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구중현을 경절언구에 배대하고, 현중현을 양구와 방과 할 등에 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여래선의 어떤 도리에 정전백수자 등의 언구가 있고, 양구와 방과 할의 작용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황당무계한 말로서 감히 들어줄 수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 까닭은 삼현 및 별도의 일구는 조사선의 경절문에서 병통을 없애주려는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래선에 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설법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은 여래선이고, 설법의 객체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은 조사선이며, 여래가 보편적인 본분진여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은 여래선이고, 달마조사가 개개인의 본지풍광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은 격외선이다. 이로써 선의 네 가지 명칭에 대해 명실상부하게 선의 네 가지 체성으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파악한 점이 선의 갈래에 대한 해월천경의 안목이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22** 수처작주 입처개진

지금 있는 그 곳이 모두 진리이다



隨處作主 立處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
처하는대로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 곳이 모두 진리이다. 〈임제록〉

隨: 따를 수
處: 곳 처
皆: 다 개
眞: 참 진

수처작주 입처개진 / 임제선사법어 / 신묘하일 / 청우산인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 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 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